

교보생명, 3년 만에 IPO 재추진... 금융지주사 전환 초석

내년 상반기 중 IPO 완료 계획
자본 조달 방법 다양화 등 추진
상장 예비심사 위한 조건 충족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를 이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일 이사회를 개최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

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

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

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케이뱅크, 출시 두 달 만에 전세대출 1000억

모든 절차 100% 비대면
앱서 예상금리·한도 확인



케이뱅크 사옥.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 누적 취급액이 출시 2개월 만에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의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은 모든절차가 100% 비대면인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 앱에서 전세계약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대출 가능여부와 예상금리, 한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제출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와 계약금 영수증(보증금 5% 이상 납입) 2가지 서류만 사진으로 촬영해서

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리는 전세대출의 경우 최저 연 2.43%, 청년 전세대출은 최저 연 2.12%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 청년전세대

출 중 81%가 2030세대”라며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한 비중은 20대 39%, 30대 42%”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최대한도는 2억 2200만원, 청년전세대출은 1억원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전세대출과 청년전세대출 두가지 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차별화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상품을 통해 2030 젊은 세대와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공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화재, 동절기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제작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가 기업들의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삼성화재는 기업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2021년 동절기 사고예방 대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예방 대책 자료는 기업고객들의 사고 예방에 앞서 온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 제작했다. 겨울철은 화재가 가장 빈번한 계절이고 폭설과 같은 계절적인 사고 위험이 있어 기업들

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삼성화재 2021년 동절기 사고예방 대책은 겨울철 화재 및 대설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대책으로 구성됐다. 동절기 발생하기 쉬운 사고들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별 점검포인트와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각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소원 기자



17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앞마당에서 ‘제11회 사랑의 김치 페어’ 행사를 열고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부터), 박현철 부국증권 사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김병욱 국회의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재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김희곤 국회의원,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부회장, 김성훈 금융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 사랑의 김치 페어 개최... 3.9만kg 기부

63개 금융투자사 후원 참여

금융투자협회가 17일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신탁사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공동으로 ‘제11회 사랑의 김치 페어(Fair)’ 행사를 협회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업계 임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김장행사를 못하게 됐지만, 협회를 비롯한 63개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김치페어 후원에 참여했다. 총 3만9000kg의 김

치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회원사 후원 복지시설 120여 곳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는 나재철 협회장과 협회 부회장사 및 유관기관 최고경영자(CEO) 등 업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소외된 이웃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사랑의 김치 페어는 참여사가 매년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옥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병욱, 김희곤 의원이 금융투자업계의

사랑나눔 행사를 격려차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회복 양상은 K자 양극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라니아의 영향으로 이번 겨울은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우리 금융투자업계도 김장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이어받아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하나금융,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출시

하나금융에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

하나금융그룹이 자체개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원큐 온 샘플’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원큐 온 샘플은 외부 테크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금융에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원큐 온 샘플은 그룹 내 ▲표준화된 데이터 분석 환경 통합관리 ▲금융 최적화 AI 기술 역량 내재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원큐 온 샘플을 하나원큐

앱 신용대출의 신용평가모델에 적용한다.

그룹 내 관계사의 로보어드바이저, AI 광학문자인식(OCR), AI 챗봇 등을 비롯한 금융 전 분야에 AI 기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환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원장은 “원큐 온 샘플을 통해 대내외 AI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금융권의 대표적인 AI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권의 AI 기술 확산을 선도하여 하나금융그룹 손님에게 차별화된 AI 서비스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NH농협銀, ‘올원 용돈관리’ 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올원 용돈관리’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원 용돈관리 서비스는 거래내역 공유 기능을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금전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친인척, 친구, 형제 등 다양한 상대와 용돈

조르기, 미션수행 등의 기능을 통해 이용 고객 간 쉽고 재미있게 용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올원 용돈관리 서비스에서 ‘용돈지갑’을 개설하거나 용돈지갑에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665명을 추첨해 삼성 갤럭시 워치4(15명), BHC 뿌링클 모바일 쿠폰(150명) 등 경품을 제공한다.

/권소원 기자